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갈 세 권의 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다소 진부한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이 물음에 대해 “책이라고? 무인도에서? 뭐 하러?”(응우옌 후이 티엵) 이렇게 짐짓 탄축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고약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스펅크스가 틀림없다.”(아멜리 노통브) 또는 “이 질문은 비인간적이다. 문학 유산은 대양의 방식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파트리크 샤무아조) 이렇게 책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성경』과 셰익스피어는 제외해 달라는 단서를 달아도 기어코 이 두 가지를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가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묵직한 책, 두껍고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온 책들에 치우친 목록이 될 가

능성이 클 것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단테의 『신곡』,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천일야화』……. 전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이 무인도에 가져갈 책에 대한 답변이 『무인도의 이상적 도서관』에 실려 있다.

그런데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1712~1778)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 루소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 있다면 단 한 권이 있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가장 좋은 자연 교육 개론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 책은 나의 에필이 읽게 될 최초의 책이 될 것이다. 그 책만이 오랫동안 그의 책꽂이에 꽂혀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품격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그런 훌륭한 책은 어떤 책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일까, 플리니우스의 책일까, 뷔퐁의 책일까? 아니다. 그것은 『로빈슨 크루소』다. (장 자크 루소, 『에필』, 329쪽)

『무인도의 이상적 도서관』에서도 『로빈슨 크루소』를 꼽은 작가들이 더러 있지만, “무인도에 가져갈 책”이라고 듣는 순간 대다수는 『로빈슨 크루소』를 우선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치 “다람쥐” 하면 “도토리”가 떠오르듯이,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삶은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다. 무인도에 가져갈 책은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 읽는 책이다.’ 작가 대부분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주저 없이 『로빈슨 크루소』

를 첫째로 꼽았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하나 하나 척척 해결해 나가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있으면 어쩐지 나도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고, 로빈슨 크루소처럼만 하면 못 살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루소가 열두 살의 에밀이 읽어야 할 유일한 책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꼽은 이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는 워낙 재미있어서 에밀에게는 좋은 “오락거리”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교육거리”의 역할을 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로빈슨 크루소』를 읽는 에밀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그가 그 책에 심취하여 끊임없이 저택과 염소와 식물에 대해 생각하며, 책에서 가 아닌 사물을 바탕으로 하여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배웠으면 한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 실제의 사물을 통해 배우는 에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로빈슨 크루소』는 루소의 말처럼 “자연 교육 개론”의 역할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에 흠뻑 빠져든 에밀은 그저 책을 읽으며 배우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루소는 예견한다.

마침내 그도 주인공과 같은 생활을 하러 갈 계획을 세우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필요한 것과 자유의 향유 외에 다른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 행복한 시기의 진정한 공상적 계획이다. (장자크 루소, 『에밀』, 330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공상에 빠져든 어린이가 얼마나 많았던가. 여름방학이면 꼬마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 보겠다고 무인도를 찾아 나선 어린이 가출 사건이 신문에 실리곤 했던 기억이 난다.

로빈슨 열풍

영국의 대니얼 디포Daniel Defoe(1660~1731)가 1719년에 발표한 『로빈슨 크루소』는 발표 당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그 바탕에는 실험실처럼 고립된 처지에 사람을 밀어 넣고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심리가 깊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럴듯한 모습에 반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온전한 성공을 꿈꾸는 마음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자기도 모르게 응원하며 그런 생존 기술을 사실로 믿고 싶은 대중의 심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처럼 매력적인 요소에 힘입어 출간 당시부터 대중들이 열렬히 호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적판과 아류작들이 넘쳐났다. 대니얼 디포 자신도 서둘러 넉 달 만에 속편인 『로빈슨 크루소의 후속 여행』을 출판했다. 그 뒤로는 로빈슨류의 소설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매력적인 작은 장르가 되면서 여러 작품이 이어졌는데 얼핏 떠오르는 작품으로 『십오 소년 표류기』, 『파리 대왕』 같은 작품이 있다.

이런 작품 말고도 로빈슨 크루소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 전복적인 재해석을 시도한 작품들도 있는데, 존 콧시John Maxwell Coetzee(1940~)의 『포』와 미셸 투르니에Michel Tournier(1924~2016)의 『방드르디, 야생의

삶』이 대표적이다.

『포』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고립되어 사는 섬에 한 여성이 표류해 들어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표류한 이 여성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로 등장한다. 프라이데이는 어린 노예 시절 혀가 잘려 말을 할 수 없는 인물로 설정하였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 영국 최초의 사실주의 소설로 평가받는 『로빈슨 크루소』의 근대적 이야기 방식과 식민주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방드르디, 야생의 삶』은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인간의 삶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읽힌다. 방드르디는 프랑스어의 “금요일”이다. 방드르디는 섬에서 작은 왕국을 건설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로빈슨 크루소를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방자로 등장한다.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건설한 모든 것을 화약으로 날려 버리고 생명력 넘치는 원초적인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유쾌한 이야기다. (궁금해 하실 독자를 위해 덧붙이자면, 무인도에 가져갈 책으로 콧시는 『일리아스』와 『돈키호테』를 꼽았다. 투르니에는 먼저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꼽고, 이어서 『로빈슨 크루소』를 꼽았다.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며 “쓰디 쓴 실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추가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소설 말고 영화로는 『김씨 표류기』와 『캐스트 어웨이』가 떠오른다. 『김씨 표류기』는 어처구니없다 싶은 설정, 곧 여의도의 밤섬에 갇힌다는 있을 법 하지 않을 설정이 오히려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 주었다. 『캐스트 어웨이』는 하얀색 배구공을 주연급 캐릭터로 격상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배구공에 적합한 선명한 로고, 유명한 스포츠용품 브랜드가 노출되어 지독한 장삿속을 드러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부터 『로빈슨 크루소』가 번역되기 시작했고, 최남선이 『소년』에 연재하기도 했다. 그 뒤로 어린이를 위한 축약본이 수없이 발행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중에 1999년부터 출판계에 로빈슨 크루소 열풍이 다시 불기도 했다. 이우일의 일러스트로도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가 불붙인 열풍이었다. 이 책의 성공에 힘입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비롯해 별별 “살아남기” 시리즈 같은 단행본과 만화책이 붐을 이루었다.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는 제목부터 절묘하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생존 기술을 모방하려는 원초적 감성을 자극한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책 제목과 표지 일러스트만 보고도 ‘대박을 칠 물건’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로빈슨 크루소를 따라 해서는 무인도에서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야 정확한 것이다. 책에서 로빈슨 크루소 자신이 고백하듯이 생존의 비결은 난파된 배에 있었다. 난파된 배가 너무도 다행스럽게 섬 근처 해안으로 밀려왔고 그 배에서 온갖 도구와 총과 화약과 식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배에서 가져온 주머니에 있던 씨앗이 우연히 싹을 트게 된 덕분이었다. 섬에서 가져온 물건에 기대어 이루어진 삶이었지 로빈슨 크루소 자신이 보여 준 생존의 기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에 나온 생존의 기술도 거의 다 현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것일 뿐 『로빈슨 크루소』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다. 더러운 물을 정수하는 법, 바닷물을 증류하여 단물을 얻는 법, 훈제하는 법, 먹을 수 있는 버섯을 골라내는 법, 등등.

낮선 곳에서 길을 잃은 유럽인들

로빈슨 크루소를 모범적인 인물형으로 삼았음직한 유럽인들이 탐험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유럽의 근대 지식이 낯선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전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알아차릴 수 없는 좀 더 내밀한 비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비법은 현지인의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 스스로 알아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조지프 헨릭 Joseph Henrich은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에서 유럽인들이 탐험에 실패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현지인의 생존 비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렇게 실패한 탐험 가운데 하나로 프랭클린 탐험대의 사례를 들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은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세기로 치면 “아폴로 탐사”에 비견될 만한 프로젝트였다. 전설처럼 전해지던 북서항로 개척!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난 탐험이었다. 서유럽에서 북극권을 지나 동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는 일이었다. 수에즈운하도 없던 시절,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오려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야 하는 머나먼 항해를 해야 했다. 계획대로 이 북서항로가 개척되면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 될 것이었다.

야심 찬 계획에 걸맞게 영국의 탐험대는 최신 증기기관에 난방시설도 잘되어 있고 담수화 설비까지 갖춘 쇄빙선 두 척의 닻을 올린 것이다. 쇄빙선에는 2,000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도 있었고, 통조림을 비롯한 5년 치 식량도 실려 있었다. 1845년 6월, 노련한 해군 장교 존 프랭

클린 Sir John Franklin(1786~1847)의 지휘 아래 시작된 탐험이었다.

하지만 항해는 순탄치 않았다. 처음에는 북극권에서 1,000km 북쪽에 위치한 데번 섬 부근에서 10개월 동안 얼음에 갇혔고, 그 뒤 바다가 열려 남쪽으로 이동해 킹윌리엄 섬 쪽으로 갔지만 다시 얼음에 갇히게 되었다. 그 와중에 프랭클린 대장은 급사했다. 그렇게 19개월 동안 얼음 위에서 보낸 뒤, 부함장 크로지어의 명령으로 배를 버리게 된다. 105명의 대원이 킹윌리엄 섬에 주둔지를 세운 것이다.

헨릭에 따르면,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대원들이 차례로 죽어간 것만은 분명하다”고 한다. 킹윌리엄 섬은 이누이트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었다. 겨울에는 얼음집을 짓고 잘 만들어진 작살로 바다표범을 사냥한다. 여름에는 카약을 타고 성능 좋은 복합궁으로 순록, 사향들소, 새를 사냥한다. 순록 뿔로 만든 작살로 연어도 잡는다. 이 작살은 특이하게도 끝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아마 연어를 잡는 데 최적화된 구조일 것이다.

차례로 죽어간 대원들의 행적도 나중에 구조대가 이누이트족 현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부함장 크로지어를 비롯한 선원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누이트 족과 마주친 것이다.

한 이야기에서는, 어느 이누이트족 집단이 선원 무리 가운데 하나를 마주쳤다고,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바다표범 고기를 주었지만 그 선원들이 사람의 팔다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곧바로 떠났다고 전한다. (조지프 헨릭,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50쪽)

식량을 못 구한 대원들의 식인 행위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결속력도 높고 잘 훈련된 대원들 105명이 19개월 동안 얼음에 갇혀 있으면서도 생존해 나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다. 로빈슨 크루소의 후예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낮은 환경에 맞닥뜨린 인간이 개별적 지능을 통해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헨릭은 지적한다. 오랫동안 쌓여 온 문화적 노하우 없이 생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얼음밖에 없는 황량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누이트족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문화적 노하우가 풍성했다.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데도 많은 노하우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잡은 바다표범을 조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화적 유산이 녹아들어 있다.

이 위도에는 목재로 쓸 나무들이 없고, 유목도 땀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드물고 귀하다. 든든한 불이 있으려면, 비누석을 깎아 등잔을 만들고 …… 고래기름으로 등잔용 기름을 마련하고, 특별한 종류의 이끼로 심지를 만들어야 한다. 물도 필요하다. 유빙은 쫄쫄 언 소금물이므로, 그것을 식수로 쓰면 탈수만 더 빨라진다. 그러나 오래된 해빙은 염분을 거의 다 잃었으므로, 녹이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 당연히, 오래된 해빙은 빛깔과 감촉으로 찾아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찾은 해빙을 녹이려거든, 비누석 등잔에 부을 기름을 넉넉히 확보하라. (조지프 헨릭,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53쪽)

비누석? 처음 듣는 돌이다. 찾아보니 표면이 비누 같은 감촉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무른 편이라 표면을 깎아 등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나 보다. 그런데 심지어 쓸 만한 이끼라니?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빗갈과 감촉으로 염분이 없는 해빙을 찾는다고? 어떤 빗갈, 어떤 감촉? 아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우선 고래부터 잡아서 기름을 짜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외부인으로서로는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생존의 지혜들이 이누이트족의 생활 곳곳에 쌓여 있다고 헨릭은 전한다. 그러니 같은 킹윌리엄 섬에 갇혔어도 이누이트족과 관계를 잘 맺은 유럽인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프랭클린 탐험대보다 15년 먼저 킹윌리엄 섬에 갇혔던 존 로스와 선원 22명 가운데 용케도 19명이 살아남아 영국으로 귀환했다는 것이다. 이누이트족이 바다표범 사냥하는 법, 개 썰매로 이동하는 법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길잡이로서 로스의 썰매 탐험대를 도와준 덕분이라고 한다.

헨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서 조난당한 유럽인 세 명의 사례도 전하고 있다. 식량이 떨어져 가던 때에 현지의 안드루완다족의 도움으로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나두nardoo라는 씨앗을 알게 된다. 씨앗처럼 보이지만 클로버처럼 생긴 양치식물의 흙씨주머니 열매였다. 아무튼 유럽인 대원들은 안드루완다족 여성이 멧돌에 나두를 갈아 빵 만드는 모습을 보아 두었다가 똑같이 빵을 만들어 먹었다.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었는데 나두로 만든 빵을 먹을수록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다. 나두의 맛은 “최상의 만족감을 주었지만” 기운이 빠지고 몸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두의 독성을 제거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이다. 처리 안 된 나두는 일부만 소화될 뿐 아니라, 몸에 있는 티아민

(비타민 B1)을 고갈시키는 티아민 분해 효소를 잔뜩 담고 있다. 헨릭은 현지인들이 나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나무를 간 뒤 엄청난 양의 물로 가루를 걸러 낸다. 이로써 소화율을 높이고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티아민 분해 효소의 농도를 낮춘다. 둘째, 빵을 구울 때, 가루를 가열하는 동안 재에 직접 노출시킨다. 이로써 산성도를 낮추면 티아민 분해 효소가 파괴될 것이다. 셋째, 나무 죽의 경우는 홍합 껍데기로만 떠서 먹는다. 이로써 티아민 분해 효소는 비타민 B1 파괴 반응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데에 필요한 유기물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조지프 헨릭,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60쪽)

보통 식물에는 조금씩은 독이 있게 마련이고 부족마다 미묘한 해독 과정을 거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인이 빵을 재에 묻히거나 죽을 홍합껍데기로 떠먹는 세밀한 노하우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세 명의 대원들도 현지인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도움을 얻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18년 동안 혼자서 섬에서 살아온 여성

어린이를 위한 역사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스콧 오델 Scott O'Dell(1898~1989)의 작품 가운데 『푸른 돌고래섬』이 있다. 외딴 섬에서 혼자 18년 동안 살았던 여성에 대한 소설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여자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로빈슨 크루소는 허구의 인물

이지만 이 여성은 실제 인물이라는 점에서 로빈슨 크루소와 다르다. 또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생존 방식에 따라 오로지 혼자 힘으로 거친 섬에서 살았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샌니콜라스 섬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서쪽으로 110km쯤 떨어진 섬으로, 높은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부는 척박한 섬이다.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1830년 무렵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러시아령 알류산 열도에서 해달을 잡으러 샌니콜라스 섬으로 내려온 세력들이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1835년, 스페인인 선교사들이 주민들을 산타바버라 선교단으로 데려오기 위해 배를 한 척 보냈다. 이때, 워낙 다급하게 대피해야 할 상황이었던 듯하다. 소설에서는 알류산 열도의 해달 사냥꾼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급하게 배에 올라야 하는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어린 소녀로 설정되어 있는데, 배에 올랐지만 어린 동생이 섬에 남아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 소녀가 바다로 뛰어들어 다시 섬으로 헤엄쳐 가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실제로는 20대 중반의 여성인데,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뛰쳐나가 일행들과 멀어지고 홀로 섬에 남은 채 “샌니콜라스 섬의 잊힌 여성”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이 여성은 18년 동안 바다표범과 바닷새를 사냥하고 물고기와 조개를 잡고 여러 가지 뿌리 식물을 캐며 살아왔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도구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일도 무척 잘 해냈다고 한다. 고래 뼈로 집을 지었다. 조개껍데기로 뉘싯바늘도 만들고 뉘싯줄은 동물 힘줄로 만들었다. 여러 동물의 뼈로 칼과 바늘 송곳도 만들었다. 가마우지 깃털로 녹색 치마도 만들었고 폴로 샌들도 짜서 신었다. 스킨 오일

에 따르면, 이 녹색 치마는 여성이 구조된 뒤에 로마로 옮겨져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혼자 잘 살아가던 여성은 수색대에 발견되었을 때도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

마침내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양호한 건강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을 지닌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자신이 갑자기 발견된 사실에 겁먹었던 상태에서 벗어난 뒤, 홀로 있던 그 여인은 지체 없이 수색대에게 저녁을 차려 주었다.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자신이 요리하고 있었던 음식들이었다. (조지프 헨릭,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60쪽)

북극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난당한 유럽인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이 여성은 비록 혼자 섬에 남겨졌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생존의 지혜를 체득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구조되어 산타바버라 선교단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사이로 돌아왔지만 섬에서보다 더 외톨이로 살아야 했다. 이 여성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구조된 동족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진 뒤였다.

존 쿿시는 『포』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영국 구조대에 구조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그렸다. 자신이 이룩한 초라한 왕국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죽고 만다. 그런 로빈슨처럼 이 여성도 구조된 뒤 몇 주를 버티지 못했다.

참고 도서

프랑수아 아르마네, 김희진 옮김, 『무인도의 이상적 도서관』, 문학수첩, 2018년.

장 자크 루소, 김중현 옮김, 『에밀』(1761), 한길사, 2003년.

대니얼 디포, 윤혜준 옮김, 『로빈슨 크루소』(1719), 을유문화사, 2008년.

존 쿿시, 조규형 옮김, 『포』, 책세상, 2003년.

미셸 투르니에, 고봉만 옮김, 『방드르디, 야생의 삶』, 문학과지성사, 2014년.

박상준 · 박경수, 이우일 일러스트,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뜨인돌, 1999년.

조지프 헨릭, 주명진 · 이병권 옮김,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뿌리와의파리, 2019년.

스콧 오델, 김옥수 옮김, 『푸른 돌고래섬』(1960), 우리교육, 1999년.

시대